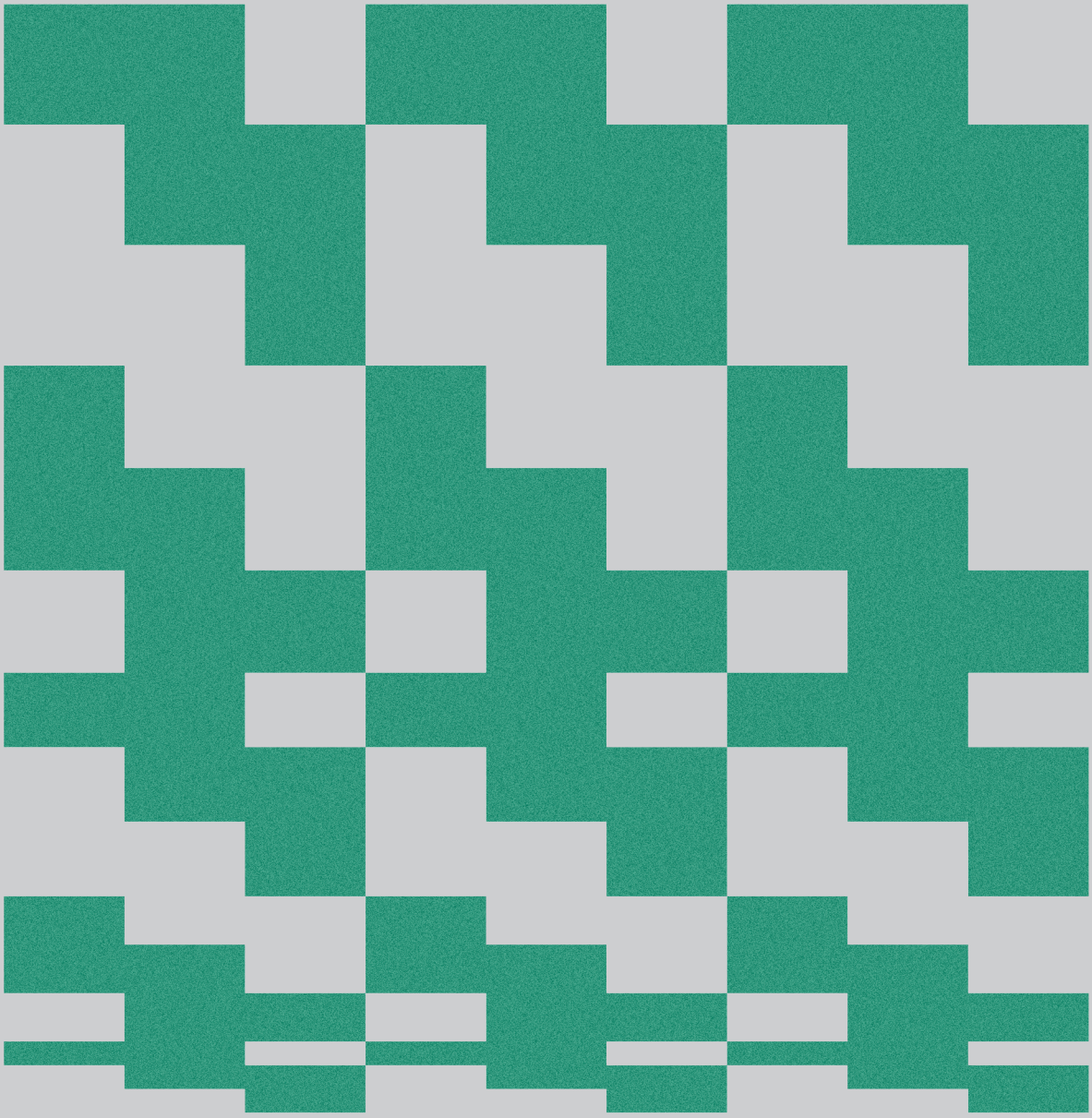
04

2021.09.07 — 09.28

이응노미술관 신수장고 M2 프로젝트룸
Lee Ungno Museum M2 Project-room



강철규 Kang Cheolgyu

ARTLAB DAEJEON

단편집: 죽지 않는 것들

같은 것에 대해, 내가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 말하면 너는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라 말한다. 다시 같은 것에 대해, 내가 빨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라 말하면 너는 끌려가기 싫은 것이라 말한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에 있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말하면 너는 치부가 되는 것이라 말한다. 너와 내겐 인식의 차이가 있고 이건 성향이라 이해하자. 나는 결핍을 채운 것이라 말하지만 너의 말대로 그것이 치부라면 난 이미 오래전부터 치부를 그려낸 셈이다. 그것이 치부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난 빨려 들어갔고 그것은 아주 깊은 곳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전적 이야기를 그만둔다면 그건 치부라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아니 결핍이니 하는 것을 드러냈고, 이젠 할 말이 없어서다. 옅어지는 기억에 기대서 되새김질할 뿐이다. 다만 네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나 역시 이곳에 있다. 비록 네가 이곳을 가상이라 말할지라도 난 이곳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곳의 사람들을, 풍경을,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바라본 너의 곳을 말한다. 나에 대해선 말하지 않아도 된다. 곳곳에 내가 있다.

시간을 그리다.

민희정
미술이론

예술가의 삶이 곧 예술이다.

언어, 행위, 신체는 물론 예술가의 바나나마저 작품이 되는 오늘, 이러한 아방가르드적 선언이나 날카로운 비판이 아닌 전통적인 형식을 고집한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성으로 작가는 늘 예술의 근원이다. 강철규는 자신의 삶을 예술적 원천으로 삼는다. 그는 기꺼이 자신을 꺼내 예술작품의 의미를 갖기 위해 성찰하고 공유한다. 특히 암묵적이며 주제화하지 않았던 심리적 사건들을 작품의 전면에 배치한다. 예를 들어 실연(失戀)과 같은 극히 개인적 서사를 화재(畫材)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는 누구나 소유하고 있기에 관객이 작가나 그의 뮤즈에 강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조야하고 세속적인 형태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그는 작가로서의 매력을 치장하기 보다는 특유의 처연함으로 흔한 서사를 특별한 순간으로 전환시킨다. 그것은 상실, 소외, 실패와 같은 부정적 경험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독에 대한 공감과 위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예술가인 자신의 삶이 동시대적 표상이 아닌 하나의 모티브로서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치유의 매개체가 되기를 바란다.

평온을 찾아서

오래전부터 예술은 인간 내면의 고통과 상처에 천착해왔다. 작가 내면의 우울은 새로운 미학적 길을 열었다. 적지 않은 작가들이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작품에 매달렸고, 관객들은 각박하고 공허한 현실을 비트는 왜곡된 형상으로부터 오히려 위로를 얻었다. 점차 고독과 허무, 상실의 스토리는 대중의 취향으로 자리했다. 현대인들의 절망과 우울을 대변하는 예술의 담론은 한때의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치유의 담론으로 확장되었다.

지난 전시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대전시립미술관, 2021)은 우리가 겪었던 특별한 경험이 보편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개인은 곧 사회'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강철규의 작업은 ≪애도 일기≫ 섹션에 공개되었는데, 이 제목은 바르트(Roland Barthes)의 저서에서 가져온 것으로, 그곳은 상실과 소외의 기억을 집요하게 추적한 그의 작품을 발표하기에 너무도 어울리는 자리였다. 그가 여기서 선보인 작품 〈관통(Penetration)〉(2021)에는 네 개의 층위로 구성된 공간에 분열된 신체가 놓인다. 이 신체는 작가 자신이자 관객에게는 자아로, 그는

유년기에 소외나 상실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심상 깊은 곳까지 추적하여 무의식의 뿌리를 드러내고자 했다. 고독한 신체와 대비를 이루는 청명한 숲,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담담한 이미지는 현실의 고독과도 조우할 수 있는 평정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렇게 기억 속 영상들을 깎아내고 얇게 압축하여 트라우마를 하나의 조각으로 축소하는 전착박소(剪錯薄小)의 행위에서 생겨나는 미세한 분자는 관객을 아득한 연민으로 이끈다.

그의 작업은 수많은 상징적 기호들로 열거된다. 그가 명명한 초록과 검은 물은 일차적으로 치유의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곳은 도피의 공간이며, 다른 누군가에겐 고독한 심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된다. 바르트가 어머니를 여의고 그 상실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옛 사진과 마주했을 때 파고든 인상, 그것을 통해 탄생한 푼크툼(punctum)이 발현되는 지점인 것이다. 이러한 해석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작업이 근본적으로 심리적 문제를 탐색하기 때문으로, 그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요소들을 지우거나, 가리고, 또 단순화하는 방법을 통해 관객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장치를 겹겹이 마련해 두었다.

그는 후기 구조주의자들에 의해 발급된 작가의 사망 진단서를 받은 세대로서 예술적 리더 혹은 논의의 제안자보다는 타인을 돌보는 간호자의 역할을 희망한다. 언젠가 그가 그토록 바랐던 것처럼, 그는 누군가의 위태로운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안락한 가상 숲을 가꾸는 일에 열중한다.

정지된 영상의 회화

강철규의 문학적 재능은 소외되고 지친 군상을 담았던 초기 작품부터 드러났다. 그는 초록이 우거진 숲과 우주로부터의 빛에 매료되어 이를 추적하는 여정을 시작하면서 작은 공간까지도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세계관이나 일정한 환경을 설정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의 연작이 아닌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 하나의 신(scene)으로 완성한 회화를 선보였으며 이어서 시퀀스(Sequence)를 이루는 작업에 다다른다.

그의 작업들이 사진이나 영화의 용어들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상매체에서 볼 수 있었던 효과나 속성들을 회화로 끌어당겨 고착하는 다양한 실험들 또한 전개해 왔기 때문이다. 작품 <Deeper>(2020)는 여섯 장의 컷이 하나의 신을 만들어 내는 듯 신체가 검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순간을 연속적으로 포착한다. 이때 신체의 외곽에 표현된 미세한 픽셀의 흔들림을 닮은 붓 터치가 이목을 끈다. 이 엷은 떨림은 영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리에 익숙한 상(像)을 회화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또한 작품 <Orang Hill>(2017)에서는 다른 장면들이 오버 랩(over rap)된 순간의 영상을 정지시켜 시간의 누적을 담아낸다. 이와 같이 분절된 이미지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되거나 겹쳐지는 효과는 동시대 관객에게 무척 익숙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작품의 레이아웃이 마치 카메라를 통해 보는 것처럼 편집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친밀함이 전해진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그가 전통적인 회화가 가지는 견고한 이미지로서의 위치나 그 예술적 권위를 해체하고 포스트휴먼 시대의 회화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에게는 완벽한 사물로서의 예술품을 제작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앞선 미의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태도 또한 찾을 수 없다.

초 현실 세계의 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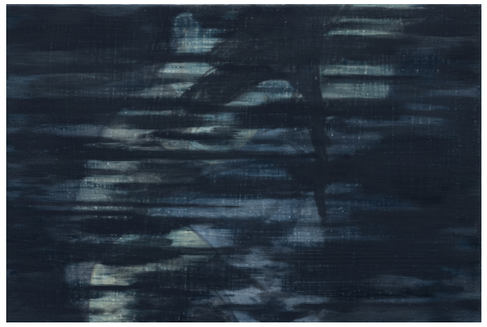
강철규는 ≪단편집: 죽지 않는 것들≫전에서 관객에게 오디오 북을 제공한다. 이것은 흔히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 관객들 스스로가 마치 퍼즐처럼 오디오를 이미지와 맞춰 시각적 서사라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도록 한 것이다. 화이트 큐브에 관객이 발을 들이는 순간, 눈 깜빡임이나 눈높이에 따른 시선, 그리고 각기 다른 시력까지, 작가는 이처럼 조건이 다른 관객들의 시각을 통제할 수 없다. 같은 이유에서 관객 역시 작가의 의도대로 이미지를 맞추어 나간다 해도 그 서사는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 운명적 조건으로 오랫동안 회화의 절대성과 순수성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시대에 이르러 이 벽은 허물어졌다. 오늘날 많은 작가들이 관객들에게 작품의 완성을 맡기고 복합적인 의미작용을 찾거나 새롭게 의미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만으로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믿는다. 회화의 끈질긴 생명력을 감지한 강철규는 다시금 원류로 돌아갔다. 그는 중세의 예술가들이 신화라는 원형적인 텍스트를 세밀화로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것처럼, 누구나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시대의 이야기를 이미지로 전사한다. 그것은 반복이 아닌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회화에 대한 모색으로부터 나온 결과였다.

재현한다는 것은 과거의 시간을 붙잡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한정된 순간들, 이처럼 안타까운 시간들을 추모하며 시간의 구속이 없는 공간에서 만들어진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결한다. 그의 작업세계를 관통하는 초현실적 세계는 먹먹하고 절망적인, 그래서 숨 막히도록 피폐한 현실적 상황에 잠시간 열린 탈출구로서, 그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 여전히 적용되는 이 세계에 지금껏 매료되어 왔다. 그리고 그 공간은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달콤한 열매를 따먹는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법칙 앞에 무력함을 느끼고 고통스러움이 반복되는 현실보다 더 매서운 곳일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 이유는 어두움을 더 짙은 어두움으로 맞서며 좀 더 강한 모습이 되어 현실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는 것이 아닐까? 멈출 수 없는 심장과 달리 우리의 시지각(視知覺)은 휴식이 가능하다. 잠시 눈 감는 사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기에 우리는 망설임 없이 끝없는 신화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다.

유령
45x53cm
Oil on canvas
2021

죽지 않는 것
73x73cm
Oil on canvas
2021



시간을 그리다.

김동규는 인간 존재에서 관계에게 모더로 제품 제공한다. 이는 존재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관계에서 제공하는 모더로 제품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관계들 스스로가 리얼하게 모더로를 이야기와 함께 들어온 순간, 본 캔버스이나 논 놓이기에 이드록 본 것이다. 캔버스 본연에 관계의 리얼한 조건으로 모두들은 회화의 세로 그 사이로 관계의 일치하지 않는다. 각 관련적 조건으로 모두들은 회화의 열심히 존재 순수성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주시하는 바와 같이 동시대에 이르러 더 짜은 틈새로 균열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일련 작가들이 관계들에게 작품의 완성을 묻기고 해결하면 10년째를 맞게 세종에 이르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만으로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화의 존재는 관계들의 관계들을 묻지만 감탄과는 다시금 원래로 돌아온다. 그는 종래의 예술개념이 신화라는 원형적인 텍스트를 세밀화로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것처럼, 누구나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시대의 이야기를 이야기로 전서한다. 그것은 반복이 아닌 새로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회화에 대한 오랫동안의 나은 결과였다.

제한된다는 것은 고기의 시간을 붙잡는 일이다. 그러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한정된 순간을, 이제껏 면이라한 시간들을 추궁하여 시간의 구속이 없는 공간에서 연출이란 텍스트와 이야기를 연결한다. 그의 작업세계를 관통하는 초현실적 세계는 작품이고 경험적인, 그에서 숲 작곡도록 리얼한 현실적 상황에 접시간 열린 일을 우리에, 그는 특별이 가지고 있는 경험한 힘이 여전히 작용되는 이 세계에 자리한 자화자서는 잠든 나타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반적 없에 무력함을 느끼고 어두운을 더 깊은 어두움으로 잠식해 줄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 이유는 작은하는 것은 '어떻게' 많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 하나로 화석로 것을 가능하다. 참나 우리는 서이 도 다른 세계가 열릴일 수 있기에 우리는 무엇일 없어 끝없는 신화의 세계로 확대될 수 있다.

인터뷰 마술이론

강철규

Kang Cheolgyu

학력

2019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2015 한남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21 <단편집: 죽지 않는 것들>, 이응노 미술관 M2 , 대전
2020 <나는 숲으로 간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2019 <Eva>, 가비 갤러리, 서울

단체전

2021 <상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20 <유니온 아트페어>, 스페이스9, 서울
2019 <네이버 온스테이지X ‘SOUND PLAY’>, 네이버 문화재단, 레이어57, 서울
2018 <Farewell>, 대전시립미술관 DMA아트센터, 대전

레지던시

2020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출간

2020 소설 「계절이 바뀌는 계절」, 강철규, 부크크
2019 소설 「Eva」, 강철규, 부크크
2017 에세이 「어루만지다」(2017) 독립출판

leeungnomuseum.or.kr

2019~2021 대전 방문의 해

CNCITY 마음에너지재단

LEEUNGNOMUSEUM